

## “예비시험제 연구 만전을 기해달라” 鄭협회장 국시원장 환담

鄭在奎(정재규) 협회장은 7월 3일 프라자호텔에서 가진 白相豪(백상호)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예비시험제도 도입과 관련 긴밀하게 상호협조하기로 다짐했다.

鄭 협회장은 간담회에서 “현재 국시원에서 예비시험제도가 연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”며 “2005년에 도입될 예정인 예비시험제도가 시행착오 없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

白 원장은 이에 대해 “치과계 교수 3명이 예비시험제도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함께 참여하고 있다”며 “연구를 통해 시행방안, 출제기준(안), 문항개발기준(안) 등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鄭 협회장은 또 “치협 산하기관으로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가 신설됐다”며 “치의국시연의 임원은 집행부의 임기와 상관없이 운영되므로 국시와 관련된 사업을 보다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국시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”고 말했다.



좌로부터 김관식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장, 정재규 협회장, 백상호 국시원장

白 원장은 이에 대해 “치의국시연이 설립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”이라며 “국시와 관련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국시와 관련된 노하우가 축적된 리딩그룹이 만들어지면 상호 협조하기에도 효율적이다”고 밝혔다.

白 원장은 또 “외국의 의료시장 개방 등에 대비하기 위해 치과 의사 면허는 국제규격임을 인증하는 제도인 ISO 기준에 맞도록 해 외국에서 국제적

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질적 수준을 높여겠다”며 “치과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”고 말했다.

鄭 협회장은 이와 관련 “치과의사국가시험의 ISO(국제표준화기구) 인증을 위해서라면 치과계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”고 덧붙였다.

한편 상견례를 겸한 이날 간담회에는 朴榮國(박영국) 치협 학술이사, 金寬植(김관식)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장이 함께 배석했다.

## 中 의료 전분야 개방요구 폴란드도 치의 인력 이동 원해

중국이 치과를 포함한 한국 의료시장 전면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. 또 폴란드도 치과의사인력 개방을 요구하는 양허요구안을 한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지난 7월 9일 “현재 우리나라에 의료분야 양허 요구안을 요청한 나라는 중국과 폴란드”라며 “이중 중국이 치과분야를 비롯 한방, 간호 등 의료 전 분야의 개방을 요구해 왔다”고 밝혔다.

이 관계자는 또 “폴란드도 치과 의사의 인력개방을 요구하는 양허요구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”고 덧붙였다.

외교통상부는 치협이 치과 의료시장 개방을 거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존중, 치과분야의 양허 요구는 하지 않기로 한

것으로 알려졌다.

익명을 요구한 외교통상분야 전문가인 K씨는 “올해 6월말까지 의료분야 양허요구안을 제출하게 돼 있으나, 유럽연합을 포함 선진국들의 양허요구안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”면서 “조만간 의료분야를 포함한 서비스 분야 양허요구안이 제출될 것이며, 현재 분위기로 볼 때 중국과 폴란드 외에 다른 국가의 의료시장개방 요구가 잇따를 수도 있을 것”이라고 예측했다.

이 관계자는 또 “한국은 WTO 일정상 오는 10월부터 중국, 폴란드와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상에 착수하게 될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 중국의 의료분야 전면개방 요청은 치협으로서서는 사실상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.